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액보험 투자 정보 가이드

변액보험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펀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카디프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금융시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변액보험을 관리해보세요!



CARDIF GUIDE <2017.7>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 본 자료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제공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및 투자결과에 대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3262호(2017. 6. 30)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 글로벌 위험자산의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 박스권 장세 예상

글로벌 자산군 선호도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01

국내 주식

추가적 모멘텀 부재 속에 박스권 장세 예상

- 단기: 연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기대 이익과 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됐으나, FOMC의 강경한 입장에도 견조한 모습. 이익추정치도 소폭 등락을 반복하지만, 레벨을 유지하여 주가도 비슷한 보폭 유지 예상
- 중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장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글로벌 시장 변동성은 높아질 것이며, 베타가 높은 한국의 시장은 더 높은 변동성 위험에 노출 우려. 다만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가 지속되고 있어 FED의 자산재투자 종료 시점으로 추정되는 9월까지의 급격한 시장 조정은 없고 추가 상승 모멘텀 역시 낮을 것으로 판단

02

국내 채권

금리상승 예상 속에 횡보세 보일 듯

- 단기: 물가 상승률 둔화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의구심 고조. 가격부담 예도 불구, 물가 반등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채권시장 박스권 등락 예상
- 중기: 하반기 채권시장은 전강후약 패턴 속에 소폭의 금리상승세가 예상. 절대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물가지표의 연속적인 반등을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3분기 채권시장은 횡보세를 보일 것. 그러나 4분기부터는 연준의 자산축소가 시작되며 대외금리의 상승압력이 높아질 전망

03

선진국 주식

미국은 상승 모멘텀 둔화, 유럽은 정치적 리스크 해소에 긍정적 흐름 예상

- 미국: FOMC 이전에 발표된 실망스러운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FED가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함과 동시에 자산재투자 종료 스케줄을 앞당기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시장의 합의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 높은 가격부담, 부담스러운 어닝에 대한 기대, 실망스러운 경기 지표 등에도 최근 주식시장은 견고한 모습
- 유럽: 프랑스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이 승리하면서 유럽의 정치 위험이 감소하면서 시장에 긍정적

04

신흥국 주식

이머징 국가 중 인도 최선호, 중국은 MSCI EM 지수 편입에도 횡보 가능성

- 인도: 7월 1일 GST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 기대감 반영되며 투자심리 양호. 양호한 문순시존이 예상되는 점 역시 우호적. 다만 주가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높아져 단기 속도 조절 가능성 열어둘 필요
- 중국: 중국 A주의 MSCI EM지수 편입 효과는 단기적으로 반영된 모습. 경기 모멘텀 둔화 조짐 고려 시 증시 횡보 흐름 연장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

05

해외 채권

기대 인플레이션 약화로 단기 모멘텀 둔화

- 단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경계감은 금리 상승 압력이나 유가 하락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약화 및 단기 경기 모멘텀 둔화로 금리 오름폭 제한 예상
- 중기: 9월 FOMC 전후로 자산재투자 종료 경계에 금리 상승 압력 부상 가능. 트럼프 인프라 투자 등 정책 기대 부상 역시 상방 요인. 다만 물가 둔화 영향 고려 시 3월 고점 크게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

06

원자재

원유 생산량 협의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통화 정책에 따라 금은 박스권 흐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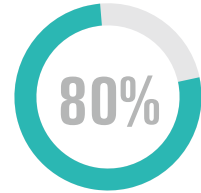
- 유가: 미국 원유 생산 확대 연장 가능성과 미약한 수요 모멘텀은 부담 요인. 생산원가 고려 시 40달러 근처에서 가격 하단 지지 판단. 원유 순투기물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립 의견 유지
- 금: 상방(견조한 신흥국 수요) 및 하방(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이 맞물리면서 금 가격 박스권 내 등락 흐름 연장 예상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

안정추구형 투자자

투자손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그래도 자산 중 일부는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마음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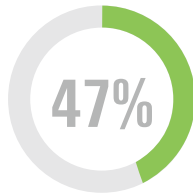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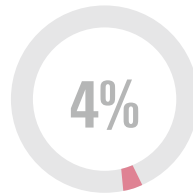
국내채권형

위험중립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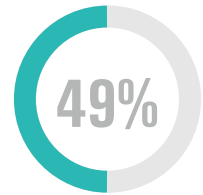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자세를 갖고 있는 고객입니다. 고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적절한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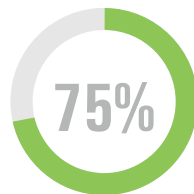
해외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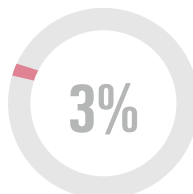
국내채권형

성장추구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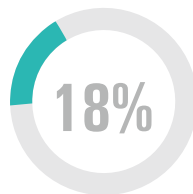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고객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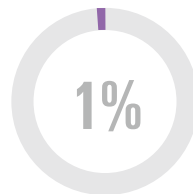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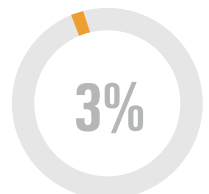
해외주식형



국내채권형



유동성자산



대체투자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국내	주식	-	연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기대 이익과 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됐으나, FOMC의 강경한 입장에도 견조한 모습. 이익추정치도 소폭 등락을 반복하지만, 레벨을 유지해 주가도 비슷한 보폭을 유지 예상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장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글로벌 시장 변동성은 높아질 것이며, 베타가 높은 한국의 시장은 더 높은 변동성 위험에 노출 우려. 다만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 지속되고 있어 FED의 자산채투자 종료 시점으로 추정되는 9월까지의 급격한 시장 조정은 없을 것이나, 추가 상승 모멘텀 역시 낮을 것으로 판단
	채권	=	물가 상승률 둔화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의구심 고조, 가격부담에도 불구하고, 물가 반등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채권시장 박스권 등락 예상	하반기 채권시장은 전강후약 패턴 속에 소폭의 금리상승세가 예상. 절대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물가지표의 연속적인 반등을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3분기 채권시장은 횡보세를 보일 것. 그러나 4분기부터는 연준의 자산축소가 시작되며 대외금리의 상승압력이 높아질 전망. 국내적으로도 11.2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편성과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내수가 다소나마 개선되며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 채권 매수세 둔화 등으로 채권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해외선진	미국	-	FOMC 이전에 발표된 실망스러운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FED가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함과 동시에 자산채투자 종료 스케줄을 앞당기려는 (relatively soon)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 높은 가격 부담, 부담스러운 어닝에 대한 기대, 실망스러운 경기지표 등에도 최근 주식시장은 견고한 모습	산업생산능력(Capacity)지표와 노동시장지표가 완전포화상태(No Slack)에 돌입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FED의 움직임은 옳은 방향으로 판단. 그러나 자산 매각을 포함한 긴축 속도는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과도한 이익추정치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비중 축소 권고
	유럽	+	프랑스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 승리하면서 유럽의 정치 위험이 감소하면서 시장에 긍정적	유로존 제조업체 PMI(57.0) 및 고용증가율도 양호한 모습. 산업, 소비자, 서비스 섹터의 신뢰도가 증가세이며, 특히 서비스 섹터의 신뢰도가 매우 견조. 근원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는 둔화세이며 가계의 저축율 역시 하락해 실질 구매력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 선진시장 내 상대 매력 부각
	일본	=	내수재 가격 상승률은 예상치 2.2%를 하회하는 2.1%를 기록했으며, 기계 주문도 연상승률 2.7%로 예상치 크게 하회.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5.7%로 유지되면서 최근 데이터는 실망스러운 수준	최근 기존 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일본은행(BOJ)의 결정으로 미국 주요국과의 차별화 심화 판단. 고용 및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안정적인 가계 소비와 수출 증가 등이 일본경제를 원만하게 성장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나, 소비자물가는 물가목표에는 크게 미달. 낮은 물가수준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완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올해 연화 강세 지속 시 일본경제의 원만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해외이머징	브라질	=	테메르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이 계속되며 정치 불확실성 여전.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업 이익 증가세 유지된 가운데 PER이 11.0배까지 떨어져 주가 단기 추가 급락 가능성 제한적	테메르 정부의 개혁 정책 지연이 불가피한 데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는 등 기업 이익 모멘텀도 밝지 않아 증시 빠른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러시아	=	유가 급락 여파 속에 RTS지수는 1,000p를 하회하며 2016년 11월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 서방국의 경제 제재 연장 등으로 제반 여건 부진 흐름. 유가 빠른 반등 어려워 주가 반등 지연 우려	기업 이익 둔화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유가 방향성에 따라 주가 등락 예상. 러시아 스캔들 여파 속에 미국의 경제 제재 연장 및 강화 조짐은 부담 요인. 밸류에이션 매력에 주가 하단 지지 판단
	인도	+	7월 1일 GST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 기대감 반영되며 투자심리 양호. 양호한 문순시장이 예상되는 점 역시 우호적. 다만 주가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높아져 단기 속도 조절 가능성 열어줄 필요	모디노믹스가 탄력 받으면서 구조 개혁 노력이 구체화되는 점은 긍정적. 이는 밸류에이션 자체의 상향 조정 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과 함께 중기적으로 주가 추가 상승 기대 유효
	아세안	+	연준의 자산 채투자 종료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외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ASEAN의 경우 단기 상승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 단기적 기간 조정 가능성 상존	역내 인프라 투자 등 중기적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 유효. 미국, 유럽 경기의 완만한 개선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맞물릴 경우 오름세 재개 가능. 이머징 마켓 내 상대적 강세 예상
해외이머징	중국	=	중국 A주의 MSCI EM 지수 편입 효과는 단기적으로 반영된 모습. 경기 모멘텀 둔화 조짐 고려 시 증시 횡보 흐름 연장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	MSCI EM 지수 편입에 따른 중기적 투자자금 유입 확대 가능성과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조짐, 가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관련 정책 기대감은 긍정적. 박스권 내 완만한 오름세 예상
	홍콩	=	연초 이후 가파른 상승에 따른 부담 상존한 가운데 미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 연장 판단	A주의 MSCI EM 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는 부담 요인. 다만 본토 증시 투자 환경 개선 과정에서 오름세 재개 기대
해외채권	채권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경계감은 금리 상승 압력이나 유가 하락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약화 및 단기 경기 모멘텀 둔화로 금리 오름폭 제한 예상	9월 FOMC 전후로 자산채투자 종료 경계에 금리 상승 압력 부상 가능. 트럼프 인프라 투자 등 정책 기대 부상 역시 상방 요인. 다만 물가 둔화 영향 고려 시 3월 고점 크게 상회할 가능성 제한적
대체투자	유가	=	미국 원유 생산 확대 연장 가능성과 미약한 수요 모멘텀은 부담 요인. 생산원가 고려 시 40달러 근처에서 가격 하단 지지 판단	40달러 이하 유가 환경에서는 미국 생산 둔화가 가능. 사우디 등 산유국 추가 조치 단행 가능성 언급. 유가 40달러 하회하며 급락세 연출 가능성 낮은 것으로 판단. 다만 빠른 반등 역시 어려울 전망
	금	=	상방(건조한 신흥국 수요) 및 하방(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이 맞물리면서 금 가격 박스권 내 등락 흐름 연장 예상	9월 FOMC 회의 전후로 통화정책 정상화 경계 속에 가격 조정 가능. 다만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관련 안전자산 수요와 신흥국 수요가 가격 하단 지지 판단

EuroStoxx50 지수

글로벌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미 연준은 6월 FOMC를 통하여 추가금리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되었던 금리인상이었기에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프랑스 총선 및 6월 FOMC등 주요 이벤트들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등 펀더멘탈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의 경기지표를 보면, 6월 ZEW(유럽경제연구센터) 경기판단지수는 개선세를 나타냈으며, 4월 산업생산 또한 전년대비 1.4% 증가하며 시장예상치에 부합하였습니다. 1분기 유로존 고용지수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여력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따라 향후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인 유로존 통합 모멘텀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HSI 지수

중국의 5월 산업생산은 시장예상치를 상회한 6.5%를 기록하였습니다. 5월 소매판매 또한 자동차 판매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7.0%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1~5월 고정자산투자는 시장예상치 보다 낮은 전년대비 8.6%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8개월간 지속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이나, 향후 금융시장 디레버리징 충격 완화를 위해 중국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 재정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OSPI200 지수

5월 실업률은 3.6%로 전월대비 0.4% 하락하였으며 고용률은 61.3%로 전월대비 0.5% 상승하였습니다. 5월 은행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3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이 3.8조원을 차지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 및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지난 6월 19일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면규제가 아닌 미시적 규제를 통하여 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6/19 부동산 대책으로 미약하긴 하나, 주택구매심리에 우호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하반기 주택시장의 성장 모멘텀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어려운 용어... 한숨 쉬지 말고, 쉽게 알아보아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의 준말로 경제 정세나 경기 전망을 검토하며 통화공급량이나 단기 금리 등 단기금융정책의 목표를 결정하는 의사체이며, 위원회의 의사록은 미국 경기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MSCI 지수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이자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입니다. 특히 미국계 펀드의 95% 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수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지수,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지수 등 국가와 산업 및 펀드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을 100여 개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기관들은 해외투자 시 각국별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MSCI지수에서 특정 국가의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MSCI는 또 각국별 지수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MSCI한국지수입니다. MSCI한국지수도 주가의 등락뿐이 아니라 환율의 변동이 반영됩니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지수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모디노믹스 (Modinomics)? 2014년 5월 인도의 총리가 된 모디의 경제정책을 말합니다. 모디가 인도국민당(BJP)의 총리 후보자시절부터 주창해온 모디노믹스는 외국인의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입니다.

*이 자료는 BNP파리바 카드프생명의 ELS 변액보험 상품 및 ELS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주식회사 두물머리에서 운영하는 ELS리서치 (<http://elsresearch.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꼭 알아야 할 ELS 수익구조] 스텝다운형 ELS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상품 구조는 '스텝다운형 ELS' 입니다.

스텝다운형 ELS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아주 대표적인 ELS 상품 구조입니다.

스텝다운형 ELS 구조만 잘 알고 계셔도 ELS 상품 구조는 거의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ELS 상품 유형별로 발행 현황을 보시면, 전체 발행된 상품 중에 약 80% 가량이 스텝다운형 ELS 상품입니다. 5개 중 4개의 상품은 스텝다운형 구조이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텝다운형 구조만 잘 알고 계셔도 대부분의 ELS 상품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스텝다운형 ELS는 대개의 경우,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 ELS 입니다(모든 ELS 상품은 만기가 존재합니다). 조기상환 조건이 있다는 것은, 꼭 만기일이 되지 않아도 만기 이전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익이 발생하고 원금이 상환됨을 의미합니다. 이 조기상환 조건이 계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기 때문에 스텝다운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실제로 조기상환 조건이 계단처럼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스텝다운 노낙인형



상품 발생일에 최초 기준가 설정

그림에서는 조기상환배리어가 90-90-90-80-70-60 (%)로 되어 있는데요.

매우 전형적인 3년 만기의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90이라는 숫자는 ELS 발행 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이라고 했을 때 90% 수준, 즉 10% 까지만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텝다운형의 경우 이 조기상환 조건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내려가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올라가겠지요.



N차 자동 조기상환

실제로 이 상품은 조기상환 조건이 90에서 80, 70, 마지막에는 60까지 내려갑니다. 마지막 만기 때는 기초자산가격이 60% 수준, 즉 최초 발행 시 가격에서 40% 넘게만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기가 된 마지막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기초자산이 만기시점에 40% 넘게 하락하는 경우일 텐데요.



손실 발생 사례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만기시점에 48%의 기초자산 가격 하락이 있다면 그만큼 손실로 확정되게 됩니다. 즉, 48%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매우 큰 폭의 손실인데요.

스텝다운형 ELS 투자 시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스텝다운형 ELS는 일반적인 경우 원금과 약속된 수익을 받지만 매우 큰 폭의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하면, 그 손실폭도 시장의 손실 폭과 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ELS 리서치 (<http://elsresearch.com>)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 하나로 편리하게 계약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구매 없이 MY카드프 APP에 접속!



MY카드프 APP 다운 받으세요!



▶ 검색창에 카드프생명 또는 마이카드프 입력 후 검색
▶ 설치버튼을 눌러 설치 실행

글로벌 시장 상황 파악

이번 달 핫이슈 및 자산시장별 투자 전략 참고

STEP 01

나에게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성향별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STEP 02

펀드 관리

수익률 관리,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기능 활용

STEP 03

🔄 펀드 변경 안내

변경 유형



적립비율 변경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적립비율을 변경



투입비율 변경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적립비율+투입비율 변경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과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변경 방법



My Cardif

홈페이지 방문 : www.cardif.co.kr
APP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카디프 생명' 또는 '마이카디프' 검색



은행/보험사 방문

보험을 가입하신 은행 또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 후
펀드 변경 신청

기준일 「펀드 변경 요구일 +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 적용
*영업일 기준은 개별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 횟수 연 12회 이내 가능

수수료 없음(다만, 차후 약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 가능)



📌 변액보험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액보험 계약은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